



삼국유사인문학여행(遊行)

삼국 통일전쟁으로 '한민족' 의식 고취

불교는 풍류사상 통섭하며 교육 등 뒷받침

1. '신라'의 시원과 국호

고조선 해체 이후 부여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아를 계승하거나 흡수한 신라는 사국을 통일하고 새로 일어난 북쪽의 대발해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열었다. 후삼국 이후 고려에 귀부한 신라는 고려와 조선 및 대한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삼한의 일통 약 한 세기 전에 이미 가야를 합병한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를 무너뜨리고 반도 내 백제의 고토를 흡수했지만 왜국에 대한 그 영향력을 지속시키지는 못했다. 동시에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반도 내 평안도 일부까지를 흡수했지만 그 북쪽과 만주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승해 내지는 못했다. 때문에 통일신라는 왜국과 한반도 북부와 만주 전역을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 기술의 주체인 역사가들에게 사국 통일의 의미가 절해했다. 결국 한반도 북부와 만주 전역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일어난 새로운 제국인 대발해를 아우르기 위해 '남북국'이란 표현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마한을 흡수하고 계승한 고구려와 변한을 흡수 계승한 백제와 달리 신라는 진한을 흡수하고 계승했다. '신라'의 시원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후한서>에서는 "진나라에서 망명한 이들이 한국에 오니 마한이 동쪽의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서로 부르기를 '무리' [徒]하며 진나라 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혹은 진한(辰韓/秦韓)이라 했다"는 진한의 어느 노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 "진한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德業日新] '사방의 백성을 망라해간다' [網羅四方]는 기치 아래 국호를 '신라'라고 했다.

또 하나의 나라 이름이었던 계림(鷄林)은 박혁거세의 왕후가 계정(鷄井)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혹은 계룡(鷄龍)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에 계림국이라 했다. 다른 설에는 탈해왕 때에 갈말지를 얻어 닭이 숲속에서 울었으므로 국호를 고쳐 계림이라고 했다고 한다. 계림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닭이 울었기에 '시림'(始林)이라고도 했다. '신라가 좁아 떠났다' (?)는 8세기 혜초(704~787)의 오인 율시인 '남천로위인' (南天露爲言)의 끝구절 역시 '계림'이란 국호를 보여준다. 달 밝은 밤 고향 길을 바라보니[月夜瞻鄉路] / 뜬구름만 너울너울 돌아가누나[浮雲颺颺歸] / 편지 써서 가는 편에 부치려 하나[緘書參去便] / 거센 바람 내 청을 듣지 못하네[風急不聽聞] / 내 나라는 천산북로 저쪽에 있고[我國天岸北] / 이 고장은 서쪽의 땅끝에 있다[他邦地角西] / 남방에는 가라기 조차 없으니[日南無有雁] / 그 누가 계림 향해 안부 전하리[誰爲向林飛].

2. 신라의 시조 내외

대체적으로 한 나라의 개국조는 왕받만 아니라 그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기술하고 있다. 환인의 서자였던 고조선의 환웅은 용녀를 만나 단군(檀君)을 낳았고, 하늘의 아들인 북부여의 해모수는 하백왕의 첫째딸 유화와 인연을 맺어 주몽(朱蒙)을 낳았다. 고구려의 주몽은 졸본부여의 공주였던 소서노와 혼인했으나 그 이전에 혼인한 예씨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리(琉璃)를 태자로 삼아 왕위에 올랐다. 결국 고구려를 건국한 뒤 소서노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비유와 온조를 데리고 한반도 남부로 내려갔으며 아들들은 각기 비류백제와 한성백제를 세웠다. 부여에서 이주한 가야의 김수로는 인도의 아유타 공주 허황옥을 만나 거등(居登)을 낳았다. 신라 역시 혁거세 왕과 아리영 부인 사이에서 남해(南海)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라 지배층의 주체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한다.

신라의 지배층인 6촌은 고조선 해체 이후 그 유민들이 바다와 육지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남쪽의 경주 일대에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연 역시 "이들 6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하늘'은 '북쪽의 높은 곳'이면서 '바다'를 거쳐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경주 일대에 정착한 6촌들은 일정한 권역을 관할 지배하면서 독자적 세력을 형성해 왔다. 노례왕은 9년(32년)에 6부의 이름을 고치고 6성(姓)을 내려주었다. 즉 1) 금랑부 이(李)씨의 앞전 양산촌-중흥부 2) 사랑부 정(鄭)씨의 돌산 고려촌-남산부 3) 모랑부 손(孫)씨의 무산 대수촌-장북부 4) 분피부 최(崔)씨의 자산 진지촌-홍선부 5) 한기부 배(裴)씨의 금산 가리촌-가덕부 6) 습비부 설(薛)씨의 명활산 고야촌-임천부 등이다. 고려 태조 5년(원복 5년)에는 신라 노례왕이 명명한 이들 6부를 다시 개명했다.

일연은 "지금의 고려 풍속에는 중흥부를 어머니, 장북부를 아버지, 임천부를 아들, 가덕부를 딸이라 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아마도 경순왕이 935년에 고려 태조에게 귀순한 이래 이들 4부 역시 효성스런 가족처럼 단군조선을 이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에 귀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닐까. 신라 개국 초기 이들 6부의 조상들은 3월 초하루에 앞전의 언덕 위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우리들은 위에서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방자해 제 마음대로 하게 됐소. 어찌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을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겠소."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簾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전광처럼 땅에 비치는데 흰말 한 마리가 풀을 뜯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붉은 알 한 개(혹은 푸른 큰 알)가 있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는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어보니 사내아가가 나왔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그 아이를 동천(東泉)에서 목욕을 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 졌다. 이 일로 인해 그를 혁거세(赫居世,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왕이라 했다.

그의 왕비가 되는 알영(閼英) 역시 같은 날 사람리 알영정(閼英井) 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 아이를 낳았는데 모습과 얼굴은 유달리

사국은 병립 후 각국 수많은 전쟁했지만 전쟁과정에서도 한민족은 종교적 심성 지켜 세력의 균형은 임나가야 해체로 비롯됨

고왔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월성 북천(北川)에 가서 목욕을 시키자 부리가 떨어졌다. 서라벌의 혁거세왕은 알에서 태어났고 알영왕비는 무물에서 태어났다. 혁거세설화와 주몽설화는 '난생'(卵生)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며, 북부여 해모수의 부인인 유화와 서라벌 알영의 탄생은 '수생'(水生)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일연은 주석(制註)에서 해설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서술성모(西述聖母)가 낳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선도성모(善桃聖母)를 찬양하는 말에 '어진 이를 내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음은 이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몽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다든 이야기 또한 서술성모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는가"라고 했다. 혁거세 설화의 천마와 붉은 알 및 알영 설화의 계룡과 닭의 부리는 이들을 토벌으로 하던 부족과의 연관성을 암시해 준다.

3. 사국의 통일

사국이 병립된 이래 이들 네 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 해당 군주들의 영토 확장지는 강국이



신라는 삼국을 통일 하면서 전쟁의 유희를 근원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었다. 사진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인 국보 제28호 백월사금동약사여래입상.

쟁으로 죽은 영가들을 천도했다. 아마도 당시의 통치자들은 우선 한반도와 만주 전역 및 왜열도에서 중국을 의식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고민했을 것이다. 사국 혹은 삼국 사이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근원적으로 멈출 수 있는 길은 무엇이였을까? 고구려도 백제도 가야의 통치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신라의 통치자도 대대로 '덕업일신 망라사방'의 기치를 내걸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힘의 균형으로 인한 전쟁의 유희를 무너뜨리고 삼한을 일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국의 일부 통치자들은 왕조와 권력의 지속을 위한 사국(삼국)의 현상유지를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 이래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지닌 통치자는 얼마나 됐을까? 물론 사국 혹은 삼국의 통치자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국(삼국)의 힘의 균형은 반도내 임나(任那)의 해체로부터 비롯됐다. 신라의 법흥왕과 진흥왕은 반도내 가야를 합병하면서 강국으로 발돋움 시작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당나라를 끌어들이 삼국의 통일전쟁을 시작했다. 삼국통일 전쟁 당시에 이들 삼국인들 사이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얼마나 있었으며 당(唐)이 '외세'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고조선의 해체 이래 없어졌던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오히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비로소 다시 복원된 것은 아니었을까. 끊임 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의 유희를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현상유지 의식이나 힘의 균형 의지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다.

김춘추(태종무열왕)와 김유신(흥무대왕)을 비롯한 신라인들의 삼국통일 의지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발로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반도의 제일 남단에 자리해 있으면서 '아랫배에 숨을 모으고' '장판때를 문히며' 정진했던 신라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들이 벌였던 삼국 통일전쟁은 결국 고조선의 해체 이후 처음으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불러 모은 첫 번째 계기였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삼국통일이 불완전했기에 후삼국의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통일신라에 이어 다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고려후기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바뀐 앞의 등불이 됐을 때 일연은 <삼국유사>를 찬술해 기이 편에 '고조선' 조목을 편입시킴으로써 또 다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오늘날의 국가 개념 아래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을 불러들인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김유신이 당나라 총관 이적(史正訪)의 교만함을 보고 백제(고구려)보다 당을 먼저 무너뜨리겠다는 기백을 보았던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북한을 통합하고 다시 '한민족' 의식을 회복할 날은 언제일까.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헵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끼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헵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활력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뚝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경유익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구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물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